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안톤 솔츠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테마인 죽음과 내가 겪은 한국의 장례문화에 대해서 칼럼을 쓰기로 마음 먹은 것은 지난달이었다.

프와도 같았다. 그저 환자의 호전만을 기다리며 개인의 삶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보호자 가족들의 모습을 처음 목격한 나로서는 참으로 놀라웠다.

죽음과 죽는다는 것

을 자려고 한다면 병원 관계자들은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해 보호자를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족 중에 누군가를 중환자실에 두고 있다면 병실이 어디든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이 당연했다.

게 한 사람의 생이 사라져 가는지를 보게 됐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의사가 그의 죽음을 확인한 뒤로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진행됐다. 죽은 육신은 장례식장으로 곧바로 옮겨졌고, 30분 후에는 우리 모두 장례식장 사무실에 앉

되는 동안 참으로 아름다운 장례식이란 생각을 안 할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의 정성스런 문상으로 더욱 큰 감동을 받았다.

결혼 이후 8년 만에 다시 보는 친지들이 정말 반가웠다. 먼 곳에서 이른 새벽 시간까지 와서 조의를 표하는 것을 보며 내 스스로가 가족과 한국사회의 일원임이 느껴지고 자랑스럽게까지 여겨졌다.

중환자실 앞에서 면회시간을 기다리며 보낸 병원 '캠핑'은 내 한국가족과 함께 떨어지지 않고 보낸 시간 중에 가장 길었으며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었다.

그 순간이 서로 다른 문화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서 확고히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은 언젠가는 끝나게 마련이었지만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그 감 잡힌 순간,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인사대탕평 인수위 인선부터 실행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부터 '대탕평 인사'를 통해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 시대의 정신이 국민통합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탕평인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이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사실 인수위의 역할은 업무 인수, 새 정권의 준비 작업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 25명의 인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선 끝나자마자 물가 줄줄이 인상이라니

물가가 심상치 않다. 대통령 선거 직후 정부의 통제력이 느슨한 틈을 노려 콩나물, 두부 등 식재료가가 기습적으로 오르면 데 이어 각종 공공요금도 도미노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공요금 인상은 그동안 정부가 물가 폭락을 우려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 또 원자재 가격 반영 시차가 대개 6개월 인 점을 감안하면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인상이 요인이다.

하지만 통계청 조사처럼 인구 6명 중 1명이 연간 10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진다.

한국가스공사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안 승인을 지식경제부에 요청했다. 국토해양부도 이날 광역상수도 요금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내년 1월1일부터 t당 13.8원, 2.37원씩 인상할 예정이다.

빛다가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인사로 이어져 정권 내내 비난을 자초했다.

따라서 인수위 구성은 과거 정부의 과오를 반성교사의 교훈으로 삼아 통합을 위한 탕평인사가 돼야 한다.

우리는 이번 인수위부터 박 당선인이 제시한 대탕평의 원칙에 걸맞은 능력과 식견을 갖춘 인물이 등용되기를 기대한다.

거기엔 지역적 안배가 필히 이뤄져야 한다. 박 당선인의 향후 인사를 가능케 하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9100원으로 인상되는 등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27일부터 노선별로 100~400원씩 오른다.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13곳이 인상을 제출했고, 광주 등 3곳은 내년 초 인상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공공요금 인상은 그동안 정부가 물가 폭락을 우려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 또 원자재 가격 반영 시차가 대개 6개월 인 점을 감안하면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인상이 요인이다.

하지만 통계청 조사처럼 인구 6명 중 1명이 연간 10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진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내년 1월1일부터 t당 13.8원, 2.37원씩 인상할 예정이다.

NGO 칼럼



박상하

2013년부터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이 5년간 시행된다. 지난 1차 기간 동안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우리 지역에서도 새로운 활로가 모색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주도의 사회적기업은 무엇보다 양적인 성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인건비지원 방식의 한계와 생태계 조성 미흡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사회적기업 2.0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기업의 본래 목적이 노동통합과 사회통합이란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 창출정책 수단으로 인식한 측면이 강하다 할 수 있다.

1970년대 서구 유럽에서 태동한 사회적 경제 활동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나 사회적 배제 문제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사회적 노력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과거 1차 5개년 계획이 일자리중심의 양적성장으로 대변되는 사회적기업 1.0시대였다면, 향후 2차 5개년 계획은 질적성장과 균형을 유지하는 사회적기업 2.0시대가 되어야 한다.

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종료되는 5년 후에는 자립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공공시장 확대와 판로 개척 및 조세감면 등의 다양한 지원책들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지방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화전략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의 외연이 확장되는 심리적 기대효과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기고

중국인 관광객 1억명 시대를 맞아



이기환

경제적 여유와 여가시간이 관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입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1년 중 3분의 1이나 되는 여가시간을 갖게 된 중국인들은 정부의 복지서비스 확대정책에 힘입어 해외로 발

길을 돌리고 있다. 2009년에 4765만명에 불과했던 해외관광객이 2010년에는 우리나라 국민 수보다 많은 5738만 명으로 늘었고 2011년에는 7035만명으로 경총 뛰어 2020년에는 1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인 관광객이 2010년에는 우리나라 국민 수보다 많은 5738만 명으로 늘었고 2011년에는 7035만명으로 경총 뛰어 2020년에는 1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중국인의 관광행태 변화는 전남의 관광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곳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트렌드가 딱 들어맞는 곳이 바로 전남이다.

특히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전남이 널리 홍보되었을 뿐 아니라 중·일간의 국토 분쟁으로 야기된 반일감정이 중국인의 발길을 전남으로 돌리게 하여 여간 반가운 일이다.

최근 전남 해안에 기항하기로 예정돼 있고, 중국 내륙에서도 정기성 전세기를 무안 공항에 취항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이다.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없었다면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릴 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필자가 운전하는 소형차가 1차선을 직진하고 있었다. 오른쪽은 차선이 있다가 없어지는 차로였고 필자의 차 오른쪽을 주행하는 상대차량은 갑자기 차로가 없어지지 않고 필자의 차 오른쪽 부분을 들이 받았다.

사고가 나자 가입한 보험사에서 현장에 나와 조사를 하고 그렇게 보험처리쪽으로 가다못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필자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생떼를 쓰는 데는 도리가 없었다.

경찰은 우선 블랙박스의 유무를 확인했다. 필자의 차량은 오래된 소형차라 블랙박스를 달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한 순간 당황했다.

그런데 정작 필자를 구해준 것은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였다.

그 차량에서 수거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상대측 운전자의 잘못이 그대로 음성과 함께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필자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블랙박스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깨달았다. 간혹 TV에서 블랙박스 사고영상이 나오면 남의 일이지 않겠나. 정작 내 자신에게 그것이 닥치고 보니 당장 블랙박스를 달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임수영·광주시 남구 방림동

無等鼓

또다시 줄기세포 화재다. 지난 2004년 당시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해 의학의 신기원을 이루는 듯했다.

줄기세포 이야기 이번에는 일본에서 전해졌다. 후쿠오카(福岡)의 한 병원 이 한 달에 500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수술을 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한 것이다.

한국 바이오벤처회사로부터 소개받아 이 회사가 배양해 보관하는 줄기세포를 환자에 게 주사 등으로 투여하는 이 병원에 한국인은 대부분 하루 일정으로 찾고 있다.

줄기세포 투여를 통해 치료하는 질병은 당뇨병, 심장병, 파킨슨병 등 다양하다.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원정치료를 떠나는 것은 국내에서는 연구단계인 줄기세포 이용 치료행위가 약사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보관하는 줄기세포를 환자에 게 주사 등으로 투여하는 이 병원에 한국인은 대부분 하루 일정으로 찾고 있다.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원정치료를 떠나는 것은 국내에서는 연구단계인 줄기세포 이용 치료행위가 약사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줄기세포 보관료 등으로 환자로부터

1000만~3000만 원을 받고 계약을 한 뒤 일본 등 규제가 없는 외국의료기관에 돈을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수년 전부터 '회춘'과 '체력 회복'을 위해 중국이나 일본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불려왔다.

줄기세포 이야기 이번에는 일본에서 전해졌다. 후쿠오카(福岡)의 한 병원 이 한 달에 500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수술을 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한 것이다.

한국 바이오벤처회사로부터 소개받아 이 회사가 배양해 보관하는 줄기세포를 환자에 게 주사 등으로 투여하는 이 병원에 한국인은 대부분 하루 일정으로 찾고 있다.

줄기세포 투여를 통해 치료하는 질병은 당뇨병, 심장병, 파킨슨병 등 다양하다.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원정치료를 떠나는 것은 국내에서는 연구단계인 줄기세포 이용 치료행위가 약사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보관하는 줄기세포를 환자에 게 주사 등으로 투여하는 이 병원에 한국인은 대부분 하루 일정으로 찾고 있다.

줄기세포 보관료 등으로 환자로부터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민석
대표전화 222-8111
광고문의 062-227-9600